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2월 4일(주일) 제1420호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된다 12월 12일~1월 20일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12일(월)부터 2023년 1월 20일(금)까지 40일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주제는 '길,

진리, 생명'이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유일성, 진리성, 영원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이다.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강사는 이재훈 담임목사다. 이주연(산마루교회), 강동진(보나콤공동체), 이태후(필라델피아 빈민사역), 김영련(산호세온누리교회 은퇴), 박종길(서빙고온누리교회), 강부호(양재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실)도 설교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캠퍼스를 방문해 설교하는 시간도 갖는다. 부천 12월 15일, 인천 12월 20일, 대전 12월 22일, 남양주 12월 27일, 수원 1월 3일, 평택 1월 5일, 강동 1월 10일, 양지 1월 12일, 안산 1월 17일, 영종 1월 19일 설교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

12월 3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이 막 오른다. 12월 3일(토)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은 장로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하는 행사다. 장로합창단을 비롯해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온사랑합창단',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BEE Luce Choir', '축복의통로',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온누리선교재단합창단', '물맷돌합창단' 등 온누리교회 소속 9개 합창단이 참가한다. 온누리목회자합창단도 잔조 출연한다.

봉성희 권사(축복의통로, 강남A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면서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에 초대했다.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

대학청년부 사랑애포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애포눔'과 지역교회와 쪽방촌 등지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한다.

'사랑애포눔' 사역은 12월 3일(토), 10일(토) 실시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참여한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 1천 55가구에 생필품, 쌀, 반찬 등을 전달한다.

요셉청년부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 나섬교회, 갈렙청년부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 등대교회,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허브대학부 신양장로교회와 중앙사회복지관, 하늘대학부 관악노인복지관을 섬긴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10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에서 94개 팀이 참가한다. 전국 74개 지역교회,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블레싱 선물, 온라인 블레싱 등을 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엔젤트리 사연 61% 연결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서 참여

아직 2022 엔젤트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둘러야겠다. 벌써 2022 엔젤트리 사연이 61%(3,527건) 연결됐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각 캠퍼스 로비와 목회행정실에 설치된 엔젤트리를 찾으면 된다. 우선 기도하고, 2022 엔젤트리 사연을 뽑은 다음에 사연지하단에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를 후원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를 받은 성도들은 일주일 이내에 선물을 발송하면 된다. 선물을 발송을 완료한 성도들은 각 캠퍼스 엔젤트리폰에 '선물발송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정인숙 성도는 "매년 연말 엔젤트리에 참여하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영성 기자 k4458@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성경으로 세상 읽기

‘성경’을 기준 삼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법



류현모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저자)

입견과 편견의 렌즈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이 따를 새로운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 자신의 원가정으로부터 유입된 유교적 세계관이나 불교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정에서 자랐고,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선교사들이 세운 고등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신앙이 뿌리내릴 수 없는 돌밭과 같았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결혼 후 매주 교회에 출석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탐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으로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없는 가

시밭이었다.

30대 중반에 아내의 권유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아직 수확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결단을 미루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7~8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와 가정 속 내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하지만 직장과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중 데이비드 A. 노예벨의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을 친구에게 소개받고 이를 번역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내용으로 강의하면서 내 세계관의 선글라스에는 어린 시절 가정을 통해 스며든 유교적, 불교적 요소,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주입된 인본주의적 세계관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익히 훈련되고 습득된 것들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공을 위한 경쟁 방식,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 등을 바꾸는 것은 마치 내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것처럼 힘든 일로 느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까지 얹매어 있었던 죄의 사슬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며 이원론적으로 살아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기준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이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고후 10:5).

기독교 세계관 정립은 성도의 필수 과업

절대 기준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해 ‘성경적 세계관’이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 곧 선악, 생명, 정의, 진리, 고통,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모든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것은 성경

아닌 다른 기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것을 물리치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에 걸친 과업(課業)이다. 또한 이것은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기독교 신앙이 성전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성벽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고 지키는 길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정립해 삶에 적용하는 일은 일생에 걸친 장기 과업이다. 그러나 당장 우리 세계관의 무너진 부분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적의 침투를 막는 성벽과도 같은 세계관이 견고하게 세워져있지 않으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앙을 뒤흔드는 공격적인 질문들을 받고 있다. 그에 답할 것이 나에게 없거나, 답이 있되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그 부분이 바로 세계관의 무너진 영역이다. 그에 대한 보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세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로 기도한다.

* 이 글은 두란노서원 큐티잡지 <생명의 삶> 12월호에 실린 것을 전재했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삿 11: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사사기 11:31).

기독교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한 분의 고백에 따르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고 서원한 이후 마음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서원(誓願)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거룩한 일이지만, 깊은 생각 없이 결정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다. 그의 서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다.

첫째, 자신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이다.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는 동물이기보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생명을 불태워 드린다는 의미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 이방

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지만, 구약성경은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신 18:9-10).

둘째, 서원의 대상이 된 자가 입다의 딸이었으며, 정말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불태워졌는가 하는 것이다.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삿 11:39).

입다는 서원을 행하는데 매우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무남독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민 30:2). 그래서 사사기 11장 39절은 입다가 딸의 요청대로 두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고 나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을 정말 번제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매우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39절에는 ‘죽음’, ‘번제물로 드림’에 관한 표현이 없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는 표현은 번제물로 죽임 당한 것보다 결혼하지 못한 채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 즉, 영적인 제물로 드러진 것 아닌가하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대략 두 가지 학설을 제시한다. 첫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유대 랍비들, 대부분의 교부들 및 보수주의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실제로 처녀로 죽었으며, 번제물로 태워져서 죽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채 입다의 딸이 성전 봉사자로 드러졌다는 주장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의 제물로 해석한다. 입다가 서원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에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중략)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삿 11:29-30).

하나님은 입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

하셨는데, 인간적인 표징을 구했던 입다의 불신이 서원의 배경이다. 따라서 사사기의 저자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입다는 결국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음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원이었고, 불신앙적인 서원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서원을 했기에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구원자 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록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 하더라”(삿 11:40)고 표현하며 그를 평가절하 한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입다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9~11장에는 비극적인 역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기에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전부를 구원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택함 받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도록 하신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이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완악함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손입니다.

바울과 엘리야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

코 그럴 수 없습니다”(1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고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덧과 올가미가 되었다”는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밥상이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밥상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덧과 올가미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민족이 정작 자신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심령이 혼미해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밥상이 도리어 덧과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밥상을 주시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밥상이 덧과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까닭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과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때, 아직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예도 듭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과 상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엘리야는 호렙산 굴까지 숨게 됩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19장에 호

렙산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기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기름 부어 왕들을 세우고, 너를 대신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냉정한 말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죽기를 자청했고, 호렙산 굴에 숨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7천 명이 남아 있다”고 하신 말씀은 “네가 아니라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이미 7천 명이 남아 있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일할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는 자신이 너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갈멜 산의 승리는 어쩌면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듣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셨을 뿐인데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상황이 어려워졌을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자기 의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위대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 없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착각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쓰임 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면 ‘나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지?’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의입니다. “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도 있고, 7천 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올바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자기의식, 자기교만, 자기자랑에 빠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잘못된 의식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으니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일부 교회들의 문제와 잘못된 모습을 보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단정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문제요, 자기 의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초천하신 이 어렷고 고문님이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했더니 한 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느 식당에서 식중독 걸리면 식당은 앞으로 안 갑니까?”

아주 쉽고 단순한 이야기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또 엘리야처럼 자기 의에 빠져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불신앙,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11절a).

(13면에 계속)

찬양하는 기쁨! 하나 되는 은혜!

‘온누리찬양 Festival’에 초대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된다. ‘온누리찬양 Festival’이 12월 3일(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찬양 Festival은 장로합창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복의 장(場)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9개 찬양팀이 참가한다. 온누리찬양 Festival에 참가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찬양팀도 있다. 축복의통로(강남A공동체)와 물맷돌합창단(부천 믿음공동체)이 그 주인공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두 찬양팀은 온누리찬양 Festival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찬양하는 기쁨,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찬양 Festival에 참여하는 축복의통로(강남A공동체, 위), 물맷돌합창단(부천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 아래)

온누리찬양 Festival을 며칠 앞두고 축복의통로(강남A공동체)찬양팀의 연습이 한창이다. 축복의통로찬양팀은 네 명이 시작했는데 벌써 단원이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함께 찬양하며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큰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축복의통로찬양팀 단장 봉성희 권사, 지휘자 서동일 집사 부부는 요즘 온누리찬양 Festival 준비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강남A공동체에 합창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아웃리치에서 합창을 해보자며 몇 차례 연습한 적은 있었는데, 활발

하게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는 뜻은 있었는데, 실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합창단이 온누리찬양 Festival을 개최해준 덕분에 축복의통로라는 이름으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온누리찬양 Festival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과 합창에 관심 있는 강남A공동체 소속 성도들이 하나둘 모였다. 그 수가 무려 40명이나 된다. 축복의통로찬양팀 덕분에 또 하나의 교제의 장(場)이 열렸다.

“사실 강남A공동체 성도님들이 찬양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남A공동체 성도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3

시간씩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좋은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합창단원들의 가족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봉성희 권사는 온누리교회에 합창의 불이 일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찬양은 크리스천들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이자, 취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합창 불이 일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에도 합창 불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물맷돌합창단 “마음껏 찬양하라!”

부천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도 요즘 찬양으로 하나 되고 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할 기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체 식구들이 마음과 달란트를 모았다. 그렇게 물맷돌합창단이 탄생했다. 이근용 집사(물맷돌합창단)는 물맷돌합창단을 “실력은 아마추어일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프로”라고 소개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합창단을 세워보자는 성도들의 마음과 재능이 모여 물맷돌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일지 모르지만, 단원들의 믿음만큼은 프로입니다. 공동체에 건강이 안 좋은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백혈병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 함께 찬양 연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힘으로 공동체 식구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물맷돌합창단을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번갈아 가며 물맷돌합창단을 방문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주일예배에서 물맷돌합창단이 찬양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물맷돌합창단원들이 찬양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보다 큰 행복이 없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물맷돌합창단원 대부분 환갑이 넘었는데, 다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되찾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회를 마련해준 장로합창단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역칼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박봉래 장로
(장로합창단장)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과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며, 찬양은 그 입술의 열매다. 주께서는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할수록 입술의 열매가 많아진다. 더 많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영혼들의 빛깔과 형태가 제각각이지만, 곡조가 있는 찬양만큼 응축된 메소드(method)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온누리장로합창단(OEC: Onnuri Elders Cho

ir)은 지난 2012년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는 온누리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전도를 위해 흠여지는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Acts 29 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구성되었다. 온누리교회 장로들만의 자율 합창단이다.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는 물론이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천국환송예배 등에 참여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해왔다. 러브소나타 집회 등 해외 행사와 교도소 등 시설을 섬기며 힘들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장로합창단이 올해로 창단 10주년이다. 초대 지휘자로 홍정표 장로님이 섬겨주셨고, 남윤창 장로님이 지휘자로서 윤정의 반주자와 함께 10년 세월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다. 최연수 권사와 박혜준 집사가 플루트와 첼로 객원 연주자로 합류해 더욱 격을 갖춘 합창단이 되었다. 그

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해주신 그분들께 감사하다. 먼저 소천하신故 임응규,故 정윤재,故 전태경 장로님들의 헌신에도 감사사를 드린다. 다시 만나 천국찬양대에 함께 서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것을 약속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로합창단이 될 것을 다짐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기존의 생활패턴을 바꿔 놓았다. 대면 예배가 제한받는 등 우리네 삶에 큰 제약과 변혁을 가져왔다. 그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예측조차 어렵다. 아직도 세계적인 대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장로합창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찬양 연습을 한 것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0일(일) 국립극장 해오름홀에서 열린 ‘2022 남성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미완의 공연이었지만,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무대에 선 것 자체가 주의 은혜였다.

오는 12월 3일 온누리장로합창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온누리찬양 Festival’을 개최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온사랑합창단’,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BEE Luce Choir’, ‘축복의통로’,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온누리선교재단합창단’, ‘물맷돌합창단’ 등 온누리교회 소속 9개 찬양팀이 참가한다. 이번 온누리찬양 Festival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떨쳐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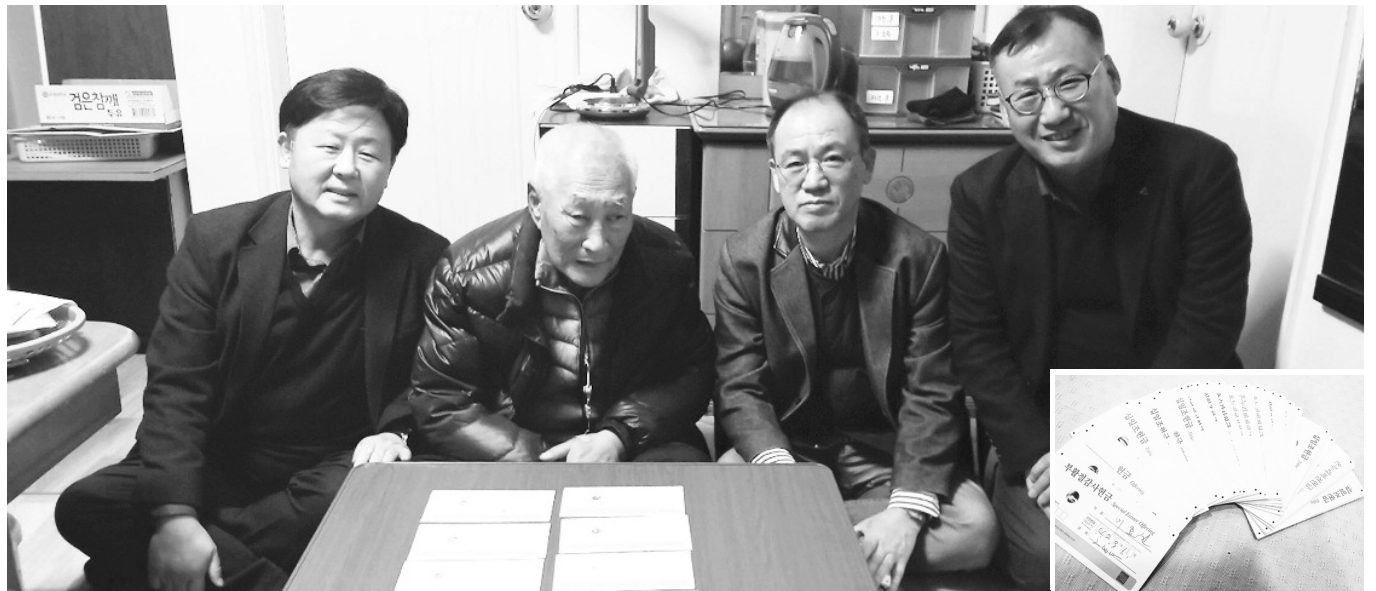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마지막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외쳤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자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입술과 지혜, 영으로 온 맘을 다해,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평생토록 찬양해야 한다.

故 이효선 성도의 마지막 예배

진짜 성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이랬으면...

한 달 전 한 성도의 부고를 들었다. 마음이 많이 쓰였다.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병상에 있는 중에도 매주 헌금을 모아두었다던 남양주온누리교회故 이효선 성도의 소식이었다. 병상에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분의 삶과 신앙이 궁금했다.故 이효선 성도의 삶을 취재하면서 ‘진짜 성도의 삶’을 묵상했다.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故 이효선 성도(왼쪽에서 두 번째)가 투병 중에 모아둔 헌금을 남양주온누리교회에 봉헌했다.

故 이효선 성도의 이야기는 남양주온누리교회 한 목회자에게 들었다.故 이효선 성도가 투병 중에 모아둔 헌금 봉투 사진과 함께 부고를 들었다. 헌금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유명인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故 이효선 성도의 부고에 마음이 쓰였던 이유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누군가는 이 기사를 읽고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많고 특별한 헌금을 봉헌한 성도들이 많다면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기자가故 이효선 성도의 이야기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누구보다 간절했으故 이효선 성도의 마지막 예배에서 봉헌한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故 이효선 성도의 이야기가 ‘진짜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던 성도

故 이효선 성도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내려왔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故 이효선 성도에게 주일성수와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다.故 이효선 성도의 아들 이동성 성도는 아버지故 이효선 성도를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던 분’으로 기억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매주 월요일에 제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낚시터에 모셔다드렸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면서 꼭 금요일 저녁에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 좋아하던 낚시를 멈출 정도로 주일성수를 지키는 일이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동성 성도는 아버지의 신앙을 의심한 적이 있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이 무척 악화된故 이효선 성도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집을 청소하다가 그동안 아버

지가 모아둔 헌금 봉투를 발견했다. 주정헌금부터 십일조, 감사헌금, 비전헌금, 추수감사헌금까지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다.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하며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지 워낙 무뚝뚝하시고, 어머니에게도 자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해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생활하시던 집을 청소하러 갔는데 방에 헌금을 모아두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교회에 직접 가지지 못했는데도 매주 헌금을 모아두셨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헌금도 빼먹지 않고 챙겨두셨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故 이효선 성도의 마지막 소원은 ‘예배’였다. 눈도 제대로 감고 뜨지 못한 채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동성 성도가 ‘아버지 예배드릴까?’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뇌경색, 당뇨, 전립선암 등 병이란 병은 모두 가지고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눈도 제대로 감고 뜨지 못하셨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올까? 우리 예배드릴까?’라고 말씀드리면 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남양주온누리교회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이동성 성도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사모하던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체험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졌고, 임종 호흡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얼

른 병원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에 초점을 잃은 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2~3시간 정도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장례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적처럼 ‘아버지 산소포화도가 올라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동성 성도는故 이효선 성도가 소천하기 전에 모아둔 헌금을 남양주온누리교회에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만큼은 철저히 지키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사랑스러운 막내아들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이 땅의 고통은 모두 잊으시고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가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던 성도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기억하는故 이효선 성도의 모습은 어떤까? 정인숙 권사(남양주온누리교회)는故 이효선 성도를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소개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중풍으로 몸이 성치 않으셨는데도 매주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시니어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매주 주일 집 앞으로 모시러

갔었는데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서 계셨는지 모릅니다. 중풍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표현을 잘 못하셨는데도 표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인숙 권사가 기억하는故 이효선 성도는 참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어 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매주 주일 만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던 미소가 아직 눈에 선합니다. 집에 심방이라도 가면 늘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습니다. 직접 반대떡도 부쳐주시고, 국수도 말아주셨지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故 이효선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정인숙 권사는故 이효선 성도가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행했다.故 이효선 성도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故 이효선 성도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말씀을 못 하시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눈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서 ‘아멘’이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사모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故 이효선 성도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떠올린 ‘진짜 성도’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께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일성수, 말씀 묵상, 기도와 헌금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故 이효선 성도처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온누리의 따듯한 발걸음

차세대와 서빙고 이웃사랑팀, 온누리선교재단의 이웃사랑



온누리교회의 이웃사랑 현장. 고3 학생들이 이웃사랑팀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고(왼쪽), 온누리선교재단은 직접 키운 배추로 사랑의 김치를 담가 이웃들에게 나눠줬다(오른쪽).

몸과 마음이 쫄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계절이 시작됐다. 아무리 추워도 온누리의 이웃사랑은 절대 움츠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른다.

올해 겨울에도 온누리교회의 이웃사랑은 쉽다. 사회선교부 ‘엔젤트리’에 사연 5,756건이 접수됐고, 천사가 되어줄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청년부에서는 ‘사랑앓이’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시작한다.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05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74개 지역교회,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도 방문한다. 이 아름다운 온누리의 이웃사랑이 추운 겨울을 녹인다.

여기, 더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과 서빙고 이웃사랑팀, 온누리선교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마음이 몽글몽글

지난 11월 27일 동빙고 근린공원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한 무리 사람들이 모였다.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 50여 명과 서빙고 이웃사랑팀(이하 이웃사랑팀) 봉사자들이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이웃사랑팀이 구제 봉사하는 날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주변(동빙고동, 보광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0여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생필품 등을 나눠준다.

매달 하는 봉사지만, 이날 봉사가 더 특별한 이유는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 50여 명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철원 총무(서빙고 이웃사랑팀)가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보통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마음껏 놀고 싶을 텐데, 온누리교회 고3 학생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선

생님이나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신청했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의 이웃사랑 실천은 소하연 학생(19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올해 초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1일 이웃리치’였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 공약을 거의 잊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능력시험까지 연달아 이어지면서 봉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을 만날 날이 다가오니 긴장됐다.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오늘 봉사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안 왔으면 박경애 할머니의 긴 손톱을 잘라드리지도, 온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정말 좋아하시고,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의 방문에 어르신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유복순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선물 같다”고 인사했다. 김숙연 어르신은 그동안 주저하던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했다. 김예은 학생(19세)은 이날 만난 할머니들이 벌써 그림다고 했다.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도 외로운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을 도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할머니들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김치”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

월동준비의 꽃 ‘김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이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다. 지난 11월 14일(월) 온누리선교재단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이웃 주민 등 약 서른 명이 모여 배추 250포기를 김장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가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용산가족공원 텃밭을 빌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키우고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성껏 담긴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다. 온누리선교재단이 담은 사랑의 김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아파트 경비원, 장애인 등 이웃 70여 명에게 전달했다.

박경화 성도(고양은평공동체)도 온누리선교재단으로부터 사랑의 김치를 선물 받았다. “온누리선교재단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김치가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김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거든요(웃음). 딸이 온누리선교재단이 보내준 사랑의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엄지척했습니다.”

박경화 성도는 한부모 가정이다. 초등학교 딸(12세)과 단둘이 산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걱정이 많았다.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온누리선교재단으로부터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다. 사랑의 김치였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김치여서 아껴 먹고 있습니다. 김치가 줄어들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김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교재단 직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김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박경화 성도가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과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꼭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김치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분들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진숙 씨(이촌동 주민)는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에 봉사자로 참가했다. 그녀와 온누리선교재단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산가족공원 텃밭을 분양받아 이것저것 작물을 가꾸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텃밭에 오셔서 배추 농사를 짓더라고요. 옷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가 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인데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와 책으로 배운 지식을 공유하면서 텃밭 일을 도왔습니다.”

전진숙 씨는 이번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에 동네 지인들을 데리고 왔다.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한 명은 무교, 또 한 명은 독실한 불교 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도 되냐’며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나, 종교를 떠나서 뜻깊은 봉사에 함께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온누리선교재단과 함께 사랑의 김치를 만들고 나서 ‘온누리교회가 대단하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더라고요. 벌써 내년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가 기대됩니다. 올해보다 김치를 더 많이 담그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크리스천의 정신건강_영적 탈진

공감(共感)이 정답이다!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책 <내
마음이 아픕니다>, <신
앙의 사계절> 저자)

지난주(11월 26일) 토요일 임직예배에서 522명의 새로운 청지기들이 세워졌다. 이들은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 교회 안팎에서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이다. 교회 사역은 교회

에서 하는 일을 뜻한다. 찬양 가사를 띄우는 일, 예배 실황을 녹화하는 일, 새로 온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 주보 및 유인물을 나눠주는 일, 성경공부 및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는 일 등이 전부 교회 사역이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사역의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그런 일에 끝수를 부릴 수 없다. 사회에서 하는 일은 적당히 눈치껏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쉽게 지친다.

‘탈진’이 힘이 다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라면, ‘영적 탈진’은 사역하다가 영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탈진의 주된 원인은 받은 은혜보다 사역에 더 큰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역에 쏟은 에너지를 능가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

엘리아의 영적 탈진

성경에서 대표적인 영적 탈진 사례를 들라면 선지자 엘리아의 경우일 것이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의 종을 죽여 버려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왕상 19:2-4).

엘리아는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긴장이 풀린 엘리아에게 사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찾아죽이겠



“영적 탈진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공감이 필요하다. 다그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공감이 정답이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

다는 이세벨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아가 이세벨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엘리아는 혼자 남겨진 외로운 선지자였고, 이세벨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비였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무조건 엘리아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엘리아는 불리한 현실에 놀려 그만 영적 탈진에 빠지고 만다. 영적 탈진을 경험한 엘리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90마일(144km)이나 떨어진 브엘세바(가나안 최남단)로 도망쳤다. 그리고도 이세벨이 찾아낼까 불안해 하루 정도 거리의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숨어서도 불안이 지속되자 엘리아는 급기야 로템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했다. 영적 탈진이 불안으로, 불안이 도피로, 도피가 절망으로, 절망이 포기로 이어진 것이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종종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거나,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 돌연 자살하기도 한다.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더는 이루고 싶은 게 없어서 탈진을 실감하게 된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역을 통해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공허함에 사로잡혀 금방 무너진다. 사탄의 말에 귀가 팔랑대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때를 놓칠 사탄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네 주제에 무슨 순장이야.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끝도 없이 속삭인다.

어쩌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사역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

도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역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실망한다. 노력의 크기와 실망의 크기는 비례한다.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영적 탈진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사역에서 오는 실망은 욕심일 뿐이다. 사역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변화했다면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왜 남들은 나처럼 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일을 하네’라며 본인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다. 분명 사역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역 곧,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다. 탈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엘리아처럼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한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뭘 한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오만가지 생각을 혼자 하다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간다. 주변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던 사역을 단번에 놔버린다.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깊이 숨어버린다. 영적 탈진이 그래서 무서운 거다. 단순히 사역할 기운을 잃는 게 아니라 무력감에 스스로 도피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래야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성공이 없어도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는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시골 목회를 하고 싶었다. 도시에 있는 중형 교회 부목사 청빙도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왔다. 시골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농촌사역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됐다. 부부는 헌신적이었다. 하루는 어느 성도에게 아프다고 전화가 왔다. 목사님은 출산 직전의 아내를 뒤로 하고 아픈 성도와 함께 병원에 갔다. 농촌교회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자녀도 한 명만 낳았다. 하지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다. 가정살림은 자녀 공부도 시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일주일에 세 번씩 성도들 몰래 읍내에서 청소 일을 했다.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으려고 멀리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다. 그래도 사모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마디씩 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심지어는 하나뿐인 아들도 부부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요? 여윌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죽을 힘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렸고, 목사님은 마음고생으로 안면마비까지 왔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부는 지쳤고, 외로움을 호소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상담실에서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한참을 울었다.

엘리아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아를 혼내지 않으셨다. 대신 천사를 보내 엘리아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셨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왕상 19:5-7).

이 목회자 부부처럼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실의 깊이도 더 깊다. 영적 탈진에 빠졌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사탄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지친 것뿐이다.

그들에게는 말보다 사랑과 공감이 필요하다. 주저앉은 동역자를 본다면 다독여주기를 바란다. 다그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 정답은 공감이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유튜브와 쇼츠 영상에 폭 빠져있습니다. 잠깐 본다고 스마트폰을 들면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유튜브(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와 쇼츠 영상에 폭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다. 비단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듣고 있다.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발달하는 AI기능(알고리즘)이 우리가 관심 있고 즐겨 보는 영상과 비슷한 카테고리(주제) 영상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나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내가 보고 싶어 할 영상들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한 영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넘쳐나는 영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려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먹으려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자주 하고 싶다. 가까이 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가

까이 있으면 선택의 순간 우선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뿐 아니라 깊게 빠져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중독된 것들이 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마음에서 멀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변화하기 힘든 부분이 우선순위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

님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 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 19:21).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의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할 때 실제 내가 활용하는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삶에서 그 시간이 우선순위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우선순위의 변화는 무엇을 가까이할 것인가에 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청년의 관심은 영생(永生)에 있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유튜브를 가까이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기 전에 지금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의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의 선택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나는 무엇이 가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소망한다.



이우람 목사
(Pole2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자기노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족치료 전문가 마크 워든(Mark Worden)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경청하는 자세’, ‘자유스럽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피드백’, ‘모든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과 자신을 어렵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노출’을 꼽았다. 여기서 ‘자기노출’은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려움 없이 표현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바람을 쉽게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오픈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신을 노출했었을 때 얻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경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가졌다면, 현실을 살아갈 때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주관적 경험이 내면에 가득히 남아있다면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맞았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극히 위축된다. 어렵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했을 때 단번에 거부당했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무시 받았거나 도리어 핀잔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노출하는 부분에서 점점 위축될 것이다. 자신을 노출할수록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불편함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출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결혼생활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자기노출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노출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도무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사람은 상대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벽을 느끼게 된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노출했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갖춰야 한다. 끊임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출하는 시도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외로 같이 살면서 답을 쌓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쫓고 감추며 살아간다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자기노출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게리 체프먼(Gary Chapman)은 자기노출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경험 함께 나누기’, ‘자신의 해석을 드러내기’, ‘감정 드러내기’, ‘욕망을 드러내기’,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등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원리는 오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불편함 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이야기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듣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이 굳은 상태로 식탁에 앉아 있다면 몹시 불편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부부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기노출 행동은 무엇일까?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게 식사해야 하는 배우자라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자기노출이 될 것이다. 만일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그냥 식사를 한다면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부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방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의 대답과 관계 없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노출이다.

반면 당신이 표정이 굳은 채로 식사하는 배우자라면 어떻게 자기노출을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 자기노출이다. “사실은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스트레스가 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자기노출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닌 외부적인 것의 영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노출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상대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말문을 닫아 버린 상황이

라면 그 상황을 뚫고 자기 노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기노출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노출의 상위 단계에 도달한다.

부부가 마음을 담아버리면 존 가트먼(John Gottman)이 위기의 부부에게서 발견하곤 했던 ‘답쌓기’ 상태가 될 것이다. 답쌓기의 특징은 서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상태가 답을 쌓은 상태다. 물론 건강한 부부라도 답을 쌓을 때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는 답을 쌓았더라도 다시 허물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또 다시 서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 부부가 답을 쌓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는 자기노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눅 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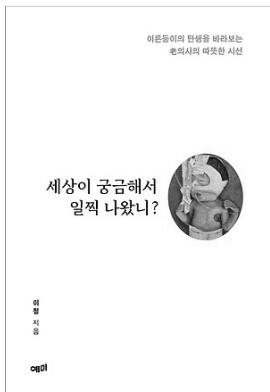
나눔: 최근 배우자에게 가장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것을 먼저 나누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신간 서평

이른둥이를 향한 老의사의 따뜻한 시선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
이철 저 | 예미 | 16,000원

스트셀러에 오른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관심을 가질 때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있다. 하루하루 엄청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생아 진료실 의사로서의 경험을 녹여 낸 책이다. 이철 장로(OCC공동체,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 전 세브란스병원장)의 신간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가 바로

그것이다.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자의 지난날들을 읽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넘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의 저자 이철 장로는 평생 진료하면서 환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의 환자들은 모두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철 장로는 우리나라 1세대 신생아진료 세부전문의다. 1995년 중앙일보(1월 14일 자)에 ‘미숙아에 새 생명 주는 신의 대리인’으로 소개될 만큼 신생아 진료 전문의 중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다. 이철 장로는 1996년 670gm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살려 내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으라면, 이른둥이들을 향한 이철 장로의 따뜻한 시선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에는 ‘미숙아’ 대신 ‘이른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미숙아는 2.5kg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들을 일컫는 의학전문용어다. 성숙하지 못한 채 태어났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보니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신생아학회에서

일반 대중의 응모를 받아 ‘이른둥이’라는 단어를 선정해 사용하고 있다. ‘이른둥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못했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칭하는 단어 하나에도 이른둥이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다.

이른둥이들에 대한 애정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에는 ‘세상에 일찍 나온 천재들’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른둥이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우리가 잘 아는 학자들부터 세계적인 정치인, 소설가, 배우 등을 소개한다. 그 글 말미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세상의 미숙아들이 뉴턴, 처칠, 아인슈타인도 이른둥이였다고 크게 외치며, 어깨를 죽 펴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많다.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태어났나 보다.”

일찍 태어나 어려운 치료를 받거나 힘든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이른둥이들에게 이보

다 큰 위로가 또 있을까? 이른 출산으로 죄책감을 겪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호기심’이라는 선한 변명이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요즘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불펜 한 자루 크기로 태어난 작디작은 아기들이 첫 호흡을 내뿜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엄마의 품에 안겨 모유를 먹고, 마침내 집에 가기까지의 시간을 읽다 보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다. 또 작은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읽다 보면 생명이 지워지는 현장을 생각하게 한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저출생,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이 이어질 것을 알기도 하듯이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왔니?〉에는 저출생과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조언도 아낌없이 녹아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12월 5일~11일
시편 39~41편;
전도서 1:1~2:11



인한 고통과 온갖 고난을 겪는 인생에 참된 소망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39편: 시편 기자는 악인 앞에서 혀로 죄짓지 않기 위해 침묵하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한다. 첫째,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통에서 구해 달라라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과 회복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던 시편 기자는 마침내 “나의 소망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40편: 시편 기자는 과거에 깊은 수렁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기다렸다. 이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음의 상황에서 그를 건지셔서 견고한 반석 위

묵상포인트 1: 시편 39~41편은 ‘죄 고백’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된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방식으로 다루실 때,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약이 된다. 시편 39~41편을 통해 죄로

에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새 노래’를 주셨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공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회중에게 선포한다. 지금 수많은 재앙에 에워싸인 그는 자기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한다. 자신을 조롱하며 생명을 멸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41편: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살게 하실 것이다. 병상에 있는 시편 기자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시편 기자는 질병과 심적 고통을 해결해 줄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

묵상포인트 2: 전도서는 욕기, 잠언과 더불어 지혜서로 분류된다. 전도서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수고와 노력이 선했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당혹해하고 좌절하는 인간들에게 주는 지혜서다. 전도자가 바라본 세계는 ‘해 아래’다. ‘해 아래’는 ‘이 땅 위의 삶’을 말하는데, 여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킨다. ‘헛됨’(허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벨’로 이는 ‘숨, 호흡, 안개, 수증기’와 같이 속히 사라질 것을 가리킨다. 헛됨(헤벨)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해 위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12:13).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만물은 피곤하고 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니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살폈지만,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다. 전도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사업을 크게 벌인다. 가족과 은금을 늘리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의 지혜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무익할 뿐이라고 전도자는 탄탄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지금 내가 고백할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자.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 ▶해 아래 삶은 허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희망이다. 해 아래 새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살펴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노숙인들을 위해!

‘노숙인의료팀과 노숙인’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숙인의료팀은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의 예배당 겸 무료 급식소를 찾아 의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대부분의 의료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어서 독감예방접종만 지속해왔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운 날씨에 독감까지 걸리면 건강이 위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팀의 사역이 올해 9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 그리고 온누리교회 노숙인의료팀과 함께 예배하는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 노숙인들에게 밥과 약을 주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을 불같이 달구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노숙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여정에 노숙인의료팀이 충실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윤상엽 팀장(노숙인의료팀)



수원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에서 전도대상자들과 초청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엄마에게 복음을 선물하다!

수원, 수요일여성전도축제 11명 결신

자녀들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장 값진 ‘복음’을 선물했다. 지난 11월 30일(수)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요일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이 열렸다. 전도대상자 28명이 참석했고, 11명이 결신했다. 8명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수요일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에서는 김현실 목사가 ‘나는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를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차나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길도 있다”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조호정 성도(수원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이 너

무 커서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엄마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전도대상자 박숙자 씨는 “딸이 늘 ‘하늘나라에 같이 가자’고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면서 “딸의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도농행사’

떡국떡, 햅쌀, 사과, 굴비, 서리태 등 판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사회선교부)에서 ‘도농행사’를 개최한다. 도농행사는 농어촌교회에서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성도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파는 프로그램이다.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12월 19일과 20일 현장 접수(본관 지하 1층), 24일과 25일 현장 판매한다. 떡국떡, 햅쌀,

사과, 굴비, 서리태, 재래김, 감말랭이, 팔, 참기름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농수산물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농어촌교회들이 섬기는 해외근로자, 결혼가정 어린이 돕기, 노후한 교회 시설 보수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문의: 02-3215-3434, 3436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월 1일~2월 25일, 서빙고 선교관 101호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도 병행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관리’, ‘미션 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1월 8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문의: 010-7708-7700

12기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기본과정)

크리스천 양육자와 다음세대의 올바른 기독교 성가치관을 세우도록 돕는 ‘12기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기본과정)’ 세미나가 2023년 1월 31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준비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성혁명 실태를 성경과 실질적 근거로 알려준다.

김지연 이사(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강의한다.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성도, 교사, 학부모,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내년 1월 25일(수)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예선 정기 전시회 ‘예술가의 시선’

12월 12일까지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

서울시가 주최하고, BC카드 payZ Arts(BC카드가 만든 미술품 거래 플랫폼)가 후원하는 ‘2022 예선 정기 전시회’가 11월 30일(수)부터 12월 12일(월)까지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종로구 인사동5길 26 라메르빌딩 1층)에서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술가의 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선 정기 전시회에는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온누리복지재

단 산하)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 113점이 전시되고 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상하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복지재단은 예선 작가들이 더욱 풍성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장로 등 40여 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2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11월 29일(화) 마포구 라이즈오토그래프호텔에서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12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크리스

천들은 이웃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잘 이끌어 가는 NGO 더멋진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은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화성 레인보우스쿨 15명 졸업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활동, 태권도 등 수업 제공

이주민 학생 15명이 화성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레인보우스쿨을 졸업했다. 레인보우스쿨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9개월 동안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활동,

태권도, 미술, 합창, 수학 등의 수업을 했다. 한편,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의자와 책상 후원과 한국어 자원 봉사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8077-9110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매주 일요일 오후 2~4시까지 봉사

네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교사(봉사자)를 모집한다.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3-1호 3층)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 섬기면 된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605-2510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서경진 이윤경 조무련 한영실	박정은 윤초희 이재숙 전숙향	박소현 박은영 박준형 이수기 이혜영 하미화	분당B 구자춘 김정숙 문성은 심성남 유진일 정광수	김혜진 민지현 오경석 이석환 임동민 정규석 조 룡	송파A 김성현 원진선 이종희 최영국	이효동
강남B 김순영 김정연 김주연 배건우 조미형 최혁준	강남D 김의중 문선정 안현국 이다혜	과천의왕 김효은 류영주 문승해 장정민	서초A 김도현 성승용 이인성 임성훈 한정순	서초C 양주현 임미화 하진양	송파B 고일미 권오채 김성진 김연재 유두한 최정은	푸른누리 김현경 김희준 변영수 성용하 이동녕
강남C 김영옥 노현정	경기A 김수경	도곡 김진영 최성은 최승아	서초B 김용미	양재A 김형범 이성일		

■ 어느 일본인 성도의 간증



/ 데와 마사코 성도(오사카온누리교회)

“말씀 덕분에
살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졸업 논문 주제로 ‘호소카와 가라샤 부인’을 선택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신약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크리스천 친구에게 상담했더니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면서 설교 테이프를 빌려주었다. 처음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의구심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당신을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어느 날 부모님이 외삼촌 장례식에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셨다. ‘이대로 장례식에 간다면 분명 많은 친척 앞에서 우상숭배 하는 것인데 어찌지?’ 5년 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떠나 당신을 부인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사 41:10)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나는 부모님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과 장례식에는 크리스천으로

서 참석한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의 분노와 슬픔이 정말 컸다. 그때의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기 2년 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하늘의 부름을 받던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시 127:2).

이 말씀을 읽고 어머니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나도 믿어야 할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셨다.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4개월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셨다. 그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살전 4:13~14)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나는 원인불명의 난치병에 걸렸다. 숨을 쉬는 것도, 빛을 쬐는 것도 아프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하나님은 그때도, 또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을 때도 내 곁에서 말씀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살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주 예수와 함께 한다면 다시는 외롭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 ‘청춘클래스’ 봉사자 간증



/ 오현교 자매(여호수아청년부)

분명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청춘클래스’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장(場)이다. 청춘클래스 2기 참가자였던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망설임 없이 3기 서포터즈에 자원했다. 청춘클래스 행사와 후속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게 되었다.

일터와 집, 교회만 반복하는 워커홀릭 같던 내 일상에 청춘클래스는 새로운 자극점이었다. 여러 후속 모임과 다양한 활동, 형제들과 여행 가던 날 설레고 행복해하던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직 청춘클래스의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가장 알맞고, 서로에게 가장 좋으며, 서로를 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다.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꼭 만나게 하실 예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 각자에게 예비하신 짝이 분명히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온 몸과 영으로 깨달았다.

청춘클래스 2기를 진행하는 동안 감사하고 소중한 추억이 많았던 만큼 3기에 참가하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부담과 긴장을 내려놓고 참가자들을 응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청춘클래스 강의도 꼭 다시 들어보고 싶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청춘클래스 3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2주 동안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수가 늘어날수록 참가자들이 더 밝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즐기는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안에서 청춘클래스 3기 참가자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가득 맺기를 기도한다. 분명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 안산M센터 성탄연합예배를 준비하며



/ 이경숙 선교사(안산M센터)

지하철로 가는 선교지

안산M센터는 매년 12월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린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시에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글로벌시티는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세계 104개국 8만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올 수 있는 선교지다. 하나님께서 안산시 원곡동에 온누리M센터를 세우셔서 이주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

올해 12월 25일에는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2년 만에 성탄연합예배를 드린다. 성탄연합예배는 러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아랍,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14개 나라에서 온 이주민과 차세대들이 모여 예수님을 나심을 축하하는 온 누리의 축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성탄절예배는 나라별 예배공동체만 모였는데, 올해는 모두 함께 연합할 예정이다. 각 공동체에서 성탄연합예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성탄연합예배를 통해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주민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벌써 각 공동체에서는 안 믿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많이 초청하고 기도하고 있다.

1부 성탄연합예배에서는 안산 러시아예배 유세르게이 목사가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각국 언어로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한다. 2부 M페스티벌에서는 특별 게스트의 공연뿐 아니라 몇몇 나라 공동체가 찬양과 워십 댄스, 스킷드라마를 선보이고, 게임과 시상 등의 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산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주민이 있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눠야 할 이주민 성도들이 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주민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안산M센터 성탄 선물 후원자 모집
내용: 이주민 형제 200여 명을 위한 성탄 선물 후원(목도리, 장갑 등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등)
문의: 031-491-9650(정연웅 간사)

■ 차세대 교사 간증



/ 진필녀 성도(과천의왕공동체)

행복한 주일여행

우리 부부는 퇴직하고 매주 일요일에 여행하고 있다. 상쾌한 아침, 카풀을 하는 우리는 수원에서 출발과 동시에 차창 밖의 사계절 경치를 감상한다. 계절에 맞는 음악,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 차 안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의 여행지는 펍택M센터다.

나는 차세대 교사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한다. 가끔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기도하며 살포시 안아준다. 그러면 긴장이 가득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충만한 은혜에 흠뻑 젖는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이 울고 있으면 물을 떠 와서 주는 아이, 무엇이든 동생들을 먼저 챙기는 배려심 많은 만언니, 화장실 데려가는 나에게 수줍게 웃으며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아이 등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가기를 기도한다.

오후에는 열방예배를 드린다. 베트남,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온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다. 예배가 끝나면 다과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눈다. 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온라인(Zoom) 중보기도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기도응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다.

마지막 활동은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악기 레슨이다. 서울에서 펍택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매주 오셔서 섬겨주시는 성가사님 덕분에 누구든지 희망자는 레슨을 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모두 함께 연주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고, 거리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행복한 주일여행 덕분에 펍택 M센터에서 사랑과 열정 가득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국어를 배워가는 열방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장로칼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조성수 장로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이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2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으로서 온누리교회와 성도님

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NGO 더멋진세상은 올해도 38개국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겼다.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을 섬기는데 집중했다. 우간다에서 남수단 난민을,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겼다. 외신에 의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게는 3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루마니아에서 난민 캠프를 지원하고, 몰도바에서는 난민 임시 캠프를 꾸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겼다. 성도들이 국경으로 나가 난민들을 영접했고, 교회와 센터에서는 누울 공간만 있으면 침대를 설치해 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난민 임시캠프에서 태어난 아이가 곧 첫 돌을 맞이할 것 같다. 눈앞이 캄캄한 난민들이 쉬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싶다.

국내에서는 남양주, 화성, 김포M센터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겼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곁에서 섬겨주신 남양주, 화성, 김포M센터 센터장님들과 봉사자님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

심과 사랑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차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애쓰는 NGO 더멋진세상이 될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NGO 더멋진세상은 Acts29 비전의 열매요, 자부심이다.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 아프리카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세네갈, 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수고하시는 지부장님과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하다.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뜨겁게 안아드리고 싶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마다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부 직원, 봉사자들, 본부 직원, 실행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다.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는 한 성도로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다. 특히 12년 동안 불철주야 섬겨주신 김광동 대표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온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며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신 김창옥 전도사님, 암 투병 중에도 변함없이 섬기시는 박대호 장로님과 문형남 장로님과 이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 그분들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눈을 뜨나 감으나 NGO 더멋진세상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실행위원님들과 봉사자님들께도 감사하다. 열방에 흩어진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에 목숨을 걸고 더 열심히 땀 것이다.

권사칼럼

그 발걸음이 오히려...



이정원 권사
(과천의왕공동체)

안산 선한목자동산교회에서는 러시아권 언어를 쓰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몇 달 전 안산 선한목자동산교회에서 어머니학교 개설 요청이 들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한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어머니학교에 연락을 한 것이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과 장성한 아들은 징집으로 함께 나오지도 못하고 생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머니학교가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와 뜻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머니학교를 준비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9).

어머니학교를 준비하는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원자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 스태프들은 그들이 어머니학교를 통해서 상한 가슴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학교 첫 시간 강의를 해야 했던 나는 가능하기조차 힘든 그들의 아픔 앞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

이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을 강의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 여성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회복되고 서야 하는지를 강의했다. 강의가 끝나고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한 자매는 “왜 자꾸 울게 만들어요? 너무 행복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라고 말했다. 통역을 담당하시는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라고 답해주셨다.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섬겼다.

어머니학교는 원래 세족식을 하지 않지만, 전쟁을 피해 남편과 아들, 가족 친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단한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다. 어머니학교 지원자들의 발을 씻기는 스태프들과 씻김을 받는 지원자들의 조용한 흐느낌 속에서 세족식이 진행되었다.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위로 받는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학교 마지막 날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어머니학교 지원자 20명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접기도를 드렸다. 할렐루야! 비록 전쟁을 피해 두려움과 고통, 상실 속에서 낯선 나라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발걸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이 있었음을 느끼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었다.

어머니학교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지원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무사히 가족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은혜의 전달자 ‘NGO 더멋진세상’



신원석 목사
(NGO 더멋진세상 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난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숫자가 2022년 1억 명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와 비교되는 것이 2015-2016년 시리아 난민 사태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이 무려 400만 명에 다다랐다. 시리아 난민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 난민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시리아 난민 중에서 95%가 인근 5개국(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 레바논은 인구 20%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고, 요르단에는 인구 10%에 해당하는 약 6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6년부터 레바논과 요르단에 밀집된 시리아 난민들을 도왔다. 2018년 레바논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가장 취약계층인 난민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졌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거의 대부분의 난민센터가 폐쇄했다.

그러나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긴급구호를 통해서 난민들의 생계와 위생을 도왔다. 올해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면서 레바논과 요르단의 선교사와 함께 다시 난민센터를 시작했다.

레바논에 새롭게 꾸려진 난민센터는 2020년 폭발사고가 발생한 베이루트항구에서 3분 거리에 있다.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부두로 몰려든 난민들을 섬기고 특히 방치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현지 목회자와 함께 교

육센터를 열었다. 폭발 사고로 무너진 건물 중에서 일부를 다시 짓고 있는데, 그 한 건물 1층과 2층을 임대해서 6명의 교사가 5~12세 어린이들에게 영어, 수학, 사회, 아랍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튀르키예나 유럽으로 간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 많다. 그런데 레바논과 요르단에 유입된 난민들은 시골 농가 지역과 노동자 계층이 많아서 문맹률이 높고, 부모들의 나이가 20~30대로 젊고 자녀도 많다. 그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일거리를 찾아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는 자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난민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난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난민센터에서는 어린이들과 어머니 대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레바논의 새 난민센터를 방문했다. 오전 7시, 이충환, 장윤선 선교사 부부가 4명의 교사와 기도하며 난민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수업

전 6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성경암송과 성경 이야기 영상 시청, 현지 목회자 사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밀려왔다. 시리아는 무너졌고, 레바논 역시 국가 부도에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 극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난민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절망으로 깊게 패인 어둠의 골짜기에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 우간다 북부에 거주 중인 3만 명에 달하는 남수단 난민,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그리고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12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은 땅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11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로 인해서 더욱 놀랍고 크신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실패는 목적이 있는 실패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하시는 축복의 사슬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의 부러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올리브나무입니다. 참올리브나무, 돌올리브나무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면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상품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구원과 선택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들을 참올리브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구원과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참올리브나무 가지들이 꺾임으로 부러졌습니다.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꺾인 부분에 돌올리브나무들을 접붙임을 함으로써 참올리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러짐과 넘어짐을 통해서, 부러진 곳에 접붙임을 통해서 가지가 더욱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식물학자들은 “이거 틀렸어. 접붙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에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그것을 원가지의 접붙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구원이 오는데,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11절b).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14절).

‘시기심’은 부정적인 단어인데 왜 이런데 썼을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일으켜 구원받게 한다는 표현이 비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기심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속하지 않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속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니즘’들 가운데도 이러한 시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이 호수를 실제로 거니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저들은 갈릴리 호수를 걸으며 눈물 흘리며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골고다 언덕에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뒷산이 예루살렘인데, 저들이 왜 저러는 것일까?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로 모여드는 이들을 보고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축복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부요함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부러진 부분에 접붙임으로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 전해졌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큰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23-24절).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고,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전 세계에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흠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많이 흠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 큰 부요함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22절).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또한 준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이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히 10:38-39).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와서 보라!

나는 중동 선교사이다.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흔히 이슬람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라고 부른다.

무슬림들은 태어났면 처음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듣는다. 무슬림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이슬람 공동체에서 온 가족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바울의 회심같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 불가능한 일들

이 지금 중동지역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무슬림이 우연히 예수를 주제로 한 영화를 한 편 봤다. 그는 예수 영화를 보고, 무슨 이유에 서인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 달 동안 예수 영화만 찾아봤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무슬림이 있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무슬림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 손술 방도가 없어서 죽어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 형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더니 지금은 공동체 리더로 섬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위성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MBB, 계속된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게 된 MBB,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에서 기독교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며 성경공부를 원했던 MBB, 먼저 믿은 동생을 때리고 핍박하다가 동생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MBB가 있다. 수많은 난민이 전쟁과 가족들의 죽음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MBB들이 늘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믿음이 자리하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부 일하시면서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복에 복을 더하시며 칭찬해 주신다. 선교는 참으로 쉽고, 흥분되는 일이다. 밭에서 수많은 보물을 찾는 일이다. 정말 재미있는 놀이와 같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은가? 와서 보라! 와서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 박경순 선교사(레바논)

서빙고 O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출은전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실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안산 온누리M센터 성탄 연합예배 및 M Festival 성탄 선물 후원 요청 물품: 복도리, 장갑 등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소량 후원 가능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어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개발자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O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운동화(사이즈 190-230) 3.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	---	--	--	--

부천 O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5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소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서진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당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중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육한 려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진중 박영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반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준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선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영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오영 최태홍 최성민 최정현 최인규 최용준 최충현 최희경 추대식 최홍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중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신대중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강매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용산 김은하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박주봉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상우애늘 사가르 에릭 마 아를스톨즈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량 차재미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여람 김가희 김다모 김동규 김반석B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진 김의연 김중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헤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세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영민 배명지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재천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심애원 안류택 양현모 오국현 오성광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태정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선영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임이세영 이은푸로 이요한 이진수 이주원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진 임도환 임동현 임승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정기은 정성원 정연영 정연상 정예은 정준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지수정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찬 권영석 권용선 권철준 김경선 김기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성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목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영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종렬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래 박상승 박성근 박성근 박영래 박용국 박종현 박찬민 박태섭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진 송일석 송재천 송창조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양태진 오성연 우광남 원우원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일 유은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광주 정문영 정병권 정보원 정순복 정영선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영 정진하 정주광 정희원 조창진 조수일 조은일 조상록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광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황영국 황용오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곽진성 권오혁 권영환 권순형 권오습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병욱 김성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환 김영국 김희준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국 김재일 김재민 김정훈 김중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장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주 김형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선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상국 남하수 라상원 류기범 문영환 문성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규범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병국 박병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수형 박일근 박일민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관 박현규 박형민 박홍근 박흥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정현 서태용 손기형 손기철 손정래 손대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호 심길섭 심효무 심희은 안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오 양준홍 양준철 양성식 오 명 오병규 용내문 우승구 오승택 오이식 우병진 유재홍 유영각 윤원덕 윤석우 윤수민 이광선 이규현 이기중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종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수완 이승배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학일 이태일 이태환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모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정영기 정문규 정성택 정영환 정병호 정문규 정성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연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성환 조서수 조희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희동 주재람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된 최영남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하영남 하영환 하필우 홍길진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합일성 합정철 하 경 하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길진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선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용일 황희서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최도성 박지인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정지석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표규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경결 김희찬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종우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서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소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현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이진택 이태일 이태환 이해달 이현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모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정영기 정문규 정성택 정영환 정병호 정문규 정성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연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성환 조서수 조희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희동 주재람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된 최영남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하영남 하영환 하필우 홍길진 한창격 한북규 한상규 한왕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합일성 합정철 하 경 하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길진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선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용일 황희서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병석 김병봉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은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용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당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병영 이종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선 김상훈 김인숙 김성진 김성진 김영은 김진우 김지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로 문성일 박대원 박창훈 박찬민 박현욱 박하민 배성우 변병선 서성광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배 염영기 우윤상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루 유정훈 이경호 이미영 이정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지아 장재홍 정상현 전홍현 정동승 정용환 조수정 조성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성봉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식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성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선 장성진 장세운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매구 쿠보타지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A Amos Lee Chri 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운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직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영훈 코다이라 노리코한상훈 허규희 흥광이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철준 김명훈 강광일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안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하 최승호 최태영 조경명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구 남병호 박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영 이경민 이경우 이종현 정영진 정영준 조경준 조요셉 홍현철 황재만 황진주
--	---	--	--	--	---	--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유튜브 CGNTV 채널 업로드



조혜련 집사의 열정적인 강의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성경을
브리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련 집사

• 12월 강의 •

5일 | 잠언, 전도서
12일 | 욥기

유튜브 CGNTV 채널 검색



다시보기
‘풍당’ 앱 다운로드

2023년 CGNTV 말씀달력이 출시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2023년을 준비하세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

